

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 
(2호 안건)

# '모두의 수출'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

2026. 2

산 업 통 상 부

# ‘모두의 수출’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(요약본)

## 1 추진 배경

### ◇ 무역금융 수요를 고려, 中企·지방의 무역금융 공급체계 개선 필요

- '25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에 따라 무역금융 역대 최고 354조원 공급
  - \* 무역금융 추이(조원) : ('22) 315 → ('23) 321 → ('24) 318 → ('25) 354 (무보268 + 수은 86)
- 무역금융 수요 증가로 정책금융만으로 수출 中企·지방의 금융공급 한계
  - \* 무역금융 이용률(무역금융/수출액) : ('23)38.9% → ('24)34.1% → ('25)35.2%

### ☞ 민·관 협업으로 中企·지방에 대한 생산적 무역금융을 공급

### ◇ 수출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무역금융 필요

- 소비재 등 유망품목 성장, 방산·원전 등 전략산업 수주 호조
  - \* 소비재 수출 및 비중(억불, %) : ('15) 210(4.0) → ('25) 463(6.5)
  - \*\* 세계 방위비 총지출(US\$) : ('22)2.24 → ('23)2.44 → ('24)2.70 → ('25<sup>e</sup>)2.80 (출처.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)
- 소비재, 방산 등 산업별 요구되는 무역금융 수요가 상이
  - \* (소비재) 영세·소규모, 온라인유통 특화, (방산) 대규모 수출금융·산업협력 요구 등

### ☞ 산업별 교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

### ◇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 무역금융 활용 요구

- 주력 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우선 공급 관행으로 인해 시장다변화를 위한 신흥시장·고위험국 대상 무역금융 공급은 제한적
  - \* 지역별 수출비중('25년) : 미·중 35.8%, 상위 5개국 56.4%, 상위 20개국 82.9%
-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시장 경험 부족으로 국내 영업에 집중, 해외 프로젝트 참여 및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지원에 한계
  - \* '24년말 국내은행 해외자산은 총 자산 3,902조원 대비 8.2% 수준(출처. 금융감독원)

### ☞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금융을 전략적 활용

## 2 추진 방향

###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무역금융

#### ‘모두의 수출’ 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

- 1 ‘모두의’ 무역금융 : 민관 협업을 통한 中企·지방의 성장 도모
- 2 ‘모든’ 무역금융 : 금융 역할 확대로 수출 품목 다변화 지원
- 3 ‘모든 곳에’ 무역금융 : 전략적 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

#### 4대 추진 과제

과제 ① 中企와 지방의  
성장을 돕는  
생산적 무역금융

- ① 중소기업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
- ② 중소·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
- ③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과제 ② 수출품목  
다변화를 지원하는  
맞춤형 무역금융

- ① K-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
- ②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수주·수출 지원 강화

과제 ③ 해외시장 진출을  
뒷받침하는 무역금융

- ①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별 무역금융 공급
- ② 국내·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

과제 ④ 무역금융 혁신을  
위한 제도정비

- ①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 개정
- ② AI 기반의 對기업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

### 3 주요 내용

#### ① 中企와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

##### □ 중소·중견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

- 대기업·은행이 동반출연하여 협력사에 대한 금리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
  - \* 자동차, 철강, 조선 →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바이오, 이차전지 등 확산
- 은행 출연 기반의 수출 中企에 대한 무역금융 우대
  - \* 민간은행 재출연 및 우대금융 공급 등 수출금융 포괄 업무협약 추진 ('26.上)

##### □ 중소·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 : 5년간 187조원

- 수출 초보기업 단체보험 확대, 수출 중추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우대 신설('26.2Q~)
  - \* 코트라 K-수출스타 선정기업 대상 보험한도 최대 2배, 보험료 할인 최대 30% 등
- 수출 유망기업 대상 특례보증 확대 및 보험·보증 연계 투자 신설 추진
  - \* 특례보증 : 일시적 경영이 어려운 기업 대상 특례인수위 심사를 거쳐 무역금융 공급

##### □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- 지방정부·공기업·은행 동반출연, 지역 수출기업 무역금융 우대 신설 추진
-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군 대상으로 무역금융 우대 신설('26.3Q~)
  - \* 보험한도 2배 상향, 보험·보증료 30% 할인, 신용조사 50% 할인 등

#### ②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무역금융

##### □ K-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

- 유통플랫폼은행이 동반출연, 입점 영세·중소상인에 대한 무역금융 우대('26.1Q)
-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우대
  - \* (기준)보험한도 2배, 보험료 할인 20% → (강화)보험한도 2.5배, 보험료 할인 30%
- K-콘텐츠 단체보험 신설 및 K-콘텐츠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

□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수주·수출 지원 강화 : 5년간 127조원

- (방산) 우리 기업 수주 조건부 先금융 제공 및 현지화 요구 대응 지원
  - \* 루마니아 대상 약 12.8억불 규모 先금융 제공 추진 ('26.3월)
- (원전) 원자력·SMR·전력인프라 등 주요국 협력사업 무역금융 지원
  - \* 대형건설사, 중소·중견 부품사 등 필요자금 지원 및 이행성 보증 제공
- (AI) ▲GPU 등 핵심기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입보험 제도 개선, ▲AI 관련 기자재 수출 中企 대상으로 무역금융 우대
  - \* (현행)주요 자원으로 품목 제한 → (개선)GPU 등 AI 핵심품목 확대
  - \*\* 신용보증 한도 1.5배 우대, 보험료 최대 20% 할인, 부보율 100% 적용 등
- (에너지) 재생에너지 등 국내 주요 프로젝트 대상 금융지원 신설
  - \* 글로벌성장 산업군 대상 수출기반보험 확대 적용, 국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동반 참여

---

③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

---

□ 적극적 新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금융 공급 강화

- 국외기업 신용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 완화
- 중소·중견기업 수출팩토링 신설 추진, 글로벌사우스부터 우선 적용
  - \* 수출팩토링 :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을 무역보험공사가 직접 매입하여 유동성 공급

□ 국내·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

-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·기업 참여 지원
  - \* ADB CGIF(ADB 산하 채권보증기구)와 S사의 싱가포르 회사채 발행 공동보증 예정('26.上)
-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 지원
  - \* 주요 권역별 표준금융 약관 마련, 재무약정 완화 등 제도 개선

---

④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

---

□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'무역보험법' 개정

- \* ▲보험·보증연계 투자, ▲수출채권 팩토링, ▲고위험 산업(중소형 조선사RG) 등 특별계정, ▲우리기업의 대외거래 지원을 위한 정부 위탁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

□ AI 기반의 수출확대를 위한 對기업 서비스 제고

- \* AI기반 맞춤형 서비스(우량 수입자 제안, 리스크 분석, 무역보험 제도 안내 등) 제공 등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평가 .....	2
III. 추진 방향 .....	4
IV. 추진 과제 .....	5
1. 中企와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.....	5
2.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무역금융 .....	7
3.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.....	9
4.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 .....	11
V. 향후 계획 .....	12

# I. 추진 배경

## ◇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따른 무역금융 공급 증가

□ 미 관세 등 불확실성에도 '25년 수출은 7,093억불로 역대 최대

\* '25년 수출입 실적(억불, %) : 수출 7,093(+3.8), 수입 6,319(△0.02), 수지 774(+256억불)

○ '25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에 따라 무역금융 역대 최고 354조원 공급

\* 무역금융 추이(조원) : ('22) 315 → ('23) 321 → ('24) 318 → ('25) 354 (무보268 + 수은 86)

## ◇ 수출산업 구조 변화로 무역금융 수요 다변화

□ 반도체·자동차 수출 호조 속, K-소비재 등 유망품목도 성장

\* 수출액(억불, %) : 반도체 1,734(+22.2), 자동차 720(+1.7), 전력기기 167(+7.2), 농수산물 124(+6.4), 화장품 114(+12.2)

○ K-컬처 전세계 확산으로 K-소비재 수출도 10년전 대비 2배 증가

\* 소비재 수출 및 비중(억불, %) : ('15) 210(4.0) → ('25) 463(6.5)

□ 방산은 세계 각국 방위비 증가로 대규모 수출·수주기회가 지속 발생

\* 세계 방위비 총지출(US\$) : ('22)2.24 → ('23)2.44 → ('24)2.70 → ('25<sup>e</sup>)2.80 (출처: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)

## ◇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무역금융의 역할·중요성 재평가

□ 우리 경제의 대외 통상 충격 완화를 위해 신흥시장 진출은 필수적

\* 지역별 수출비중('25년) : 미·중 35.8%, 상위 5개국 56.4%, 상위 20개국 82.9%

○ 신흥시장 개척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 활용 필요

□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로 현지에서 자금조달 수요 증가

○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시 우리 기업의 무역금융 접근성 제고 가능

## II. 현황 및 평가

### ◇ 무역금융 수요를 고려, 中企·지방의 무역금융 공급체계 개선 필요

#### □ 중소·중견 대상 무역금융 역대 최대 146조원 공급

\* 중소·중견 무역금융 추이(조원) : ('22) 111 → ('23) 122 → ('24) 134 → ('25) 146

#### ○ 무역금융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, 기업간 체감경기 격차 심화

\* 기업심리지수('26.1월, 한국은행) : (대기업) 101.8 vs (中企) 91.8, (수출) 102.1 vs (내수) 95.2

【수출액 및 무역금융 현황】



【중소중견 무역금융 현황】



#### □ 정책금융만으로 수출 中企·지방이 체감하는 무역금융 공급 한계

\* 무역금융 이용률(무역금융/수출액) : ('23)38.9% → ('24)34.1% → ('25)35.2%

#### ○ 기업들은 신용보증, 무역보험과 같은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

\* 정책금융 체감도(%) : (매우부족) 16.8, (다소부족) 54.1, (적정함) 18.3, (다소충분) 2.0, (매우충분) 0.7, (지원받지 않음) 8.1 (출처: 무역협회, '25년 수출기업 금융애로 실태조사)

#### ○ 지역 생산액 및 사업체 수 대비 수도권 금융 쏠림 현상 심화

\* 지역 생산 비중(68.4%) 대비 은행자금 수도권 편중(68.2%) ('23광업제조업조사 및 '25한국은행)

### 👉 민·관 협업으로 中企·지방에 대한 생산적 무역금융을 공급

- 대기업·민간은행의 기금 출연으로 무역금융 공급 자원 확대

- 대기업 수출성과를 중소기업·지방으로 환류하는 지원체계 마련

## ◇ 수출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무역금융 필요

- 소비재·방산 등 수출산업 특성별 요구되는 무역금융 수요가 상이
  - 국내 소비재기업은 영세·소규모 /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B2C 수출 → 그간 정책금융은 제조업 중심 자금지원 및 B2B 거래 무역보험 제공
    - \* '22년 기준 전체 소비재기업의 91%는 10명 미만 규모의 영세·중소기업
  - 방산·원전·플랜트 등 전략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중장기 금융 필요 → 그간 정책금융 단기성 금융에 집중
    - \* '25년 기준 단기성 VS 중장기성 무역보험 현황(조원) : 단기성235.0 vs 중장기성27.0

### ☞ 산업별 교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

- 소비재 등은 소액 다건에 대한 간편심사 도입, 온라인 수출 대응
- 전략산업은 정책금융 탄력적 운영으로 대규모·장기 금융수요 대응

## ◇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 무역금융 활용 요구

-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기업 신흥시장·고위험국 진출은 증가
  - 시장다변화를 위한 신흥시장·고위험국의 무역금융 공급 제한적
    - \* 무역보험 비중(% , '25년) : (미·중) 22.0, (상위 5개국) 42.3, (상위20개국) 76.2
  - 국내은행 또한 해외시장 경험 부족 등으로 국내 영업에 집중하고 있어 신흥국 진출 기업 대상 금융 지원에 한계
    - \* '24년말 국내은행 해외자산은 총 자산 3,902조원 대비 8.2% 수준(금융감독원)

### ☞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금융을 전략적 활용

- 신흥시장 진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및 K-금융 해외진출 지원

### Ⅲ. 추진 방향

##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무역금융

### ‘모두의 수출’ 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

- 1 ‘모두의’ 무역금융 : 민관 협업을 통한 中企·지방의 성장 도모
- 2 ‘모든’ 무역금융 : 금융 역할 확대로 수출 품목 다변화 지원
- 3 ‘모든 곳에’ 무역금융 : 전략적 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

### 4대 추진 과제

과제 ① 中企와 지방의  
성장을 돕는  
생산적 무역금융

- ① 중소기업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
- ② 중소·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
- ③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과제 ② 수출품목  
다변화를 지원하는  
맞춤형 무역금융

- ① K-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
- ②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수주·수출 지원 강화

과제 ③ 해외시장 진출을  
뒷받침하는 무역금융

- ①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별 무역금융 공급
- ② 국내·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

과제 ④ 무역금융 혁신을  
위한 제도정비

- ①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 개정
- ② AI 기반의 對기업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

## IV. 추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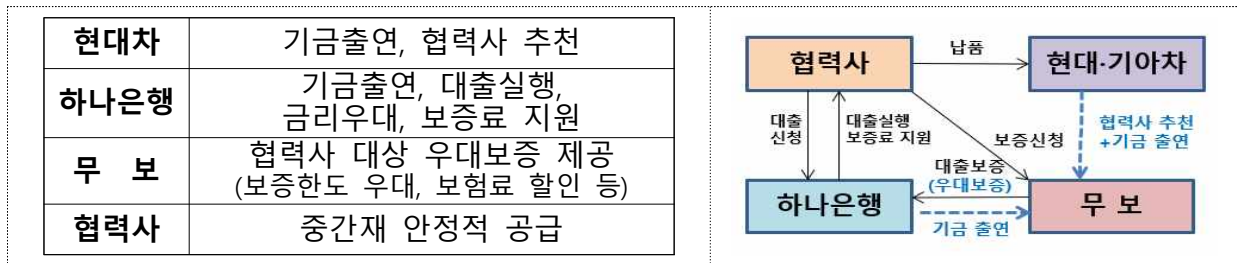
### 1 中企와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

#### ① 중소중견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

##### □ 대기업 출연 기반 중소·중견 협력사 상생금융 확대

- 수출성과를 대·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도록 대기업·은행이 동반출연하여 협력사에 대한 금리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 지원
  - ①중소·중견 협력사는 안정적 자금 확보, ②대기업은 출연금 대비 협력사 지원 확대, ③은행은 생산적 금융공급 확대 가능

【 수출공급망강화보증 운영 사례 (자동차) 】



- 수출선도 산업, M.AX 연계산업 등으로 확산 추진, 지원범위도 현행 운전자금에서 시설·투자자금 등으로 확대
  - \* 자동차, 철강, 조선 →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바이오, 이차전지 등 확산

##### □ 은행 출연 기반 수출 中企 우대금융 추가 공급

- 은행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中企대상 금리 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
  - \* 민간은행 재출연 및 우대금융 공급 등 수출금융 포괄 업무협약 추진 (26.上)

【 민·관 협업 상생 무역금융 프로그램 】



## 2 중소·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 : 187조원 ~'30년

- 수출 초보기업의 안심 수출 및 성장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
  - 해외진출 초보기업도 안심 수출할 수 있도록 **단체보험 확대**(연 37조원 이상)
  - 수출 초보기업(1천만불 이하)이 **중추기업(1천만~5천만불)**으로 성장하도록 보험료 할인 및 보험·보증한도 우대 등 **무역금융 지원**(<sup>'26.1Q</sup> 신규)
    - \* 코트라 K-수출스타 참여기업 대상 한도 최대 2배, 보험료 할인 최대 30% 등
  
- 수출 유망기업의 도약을 돕는 무역금융 공급
  -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**특례보증을 확대**, 안정적 성장을 도모
    - \* 특례보증 현황 및 '26년 목표치 (억원) : ('24) 73 → ('25) 2,143 → ('26) 3,000
  - 우량 수출기업 대상으로 보험·보증 연계 투자제도를 신설 검토,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건전성 제고(<sup>'26.3Q</sup> 신규)
    - \* 무역보험·보증을 이용중인 유망 수출기업 대상으로 주식 등을 직접 투자

## 3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- 지방정부·공기업·은행이 협업, 지역 유망 수출기업 상생금융 지원
  - 지방정부·공기업·은행이 공동출연,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인하·보증한도 우대(<sup>'26.3Q</sup> 신규)
    - \* 무역보험기금 출연기관으로 **현행정부·기업** → 지방정부·공기업 추가
  - 지방은행의 출연 확대로 지역 수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
    - \* 현재 부산은행(15억원), iM뱅크(50억원) 既 출연, 他 지방은행으로 확산 추진
  
-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무역금융 우대
  -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군 대상 **무역금융 우대 신설**(<sup>'26.3Q</sup> 신규)
    - \* 보험한도 2배 상향, 보험·보증료 30% 할인, 신용조사 50% 할인 등

### ① K-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

#### □ 유통 플랫폼기업과 협업, K-소비재 관련 기업 무역금융 우대

- 유통플랫폼·은행 동반출연, 입점 영세·중소상인 무역금융 우대<sup>(’26.1Q)</sup> 신규
  - 소액 경영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간편심사제도 병행<sup>(’26.4Q)</sup>
- K-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우대 강화
  - \* (기존)보험한도 2배, 보험료 할인 20% → (강화)보험한도 2.5배, 보험료 할인 30%

#### □ K-콘텐츠에 대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도입

- K-콘텐츠산업 전용 단체보험 신설로 K-콘텐츠 수출안전망 구축<sup>(’26.2Q)</sup> 신규
  - \* 콘텐츠 제작기업 특성상 소규모, 수출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개별기업 보험한도·보험료 산출 애로 →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하여 단체보험 신설
- K-콘텐츠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지원으로 안심수출 기반 조성

### ② 전략산업·첨단산업 대상 수출·수주 지원 강화 : 127조원<sup>~’30년</sup>

#### □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적극적 무역금융 공급

- 주요국 발주처 대상 우리 기업 수주 조건부 先금융 제공
  - \* 루마니아 대상 약 12.8억불 규모 先금융 제공 추진 (’26.3월)
- 현지생산·MRO 등 발주국 현지화 요구 대응을 위한 중장기 금융 지원
- 방산 거점 현지지사를 통한 마케팅, 금융주선, 보험인수 등 밀접 지원

□ 원전·플랜트산업 성장을 위한 무역금융 공급

- 원자력·SMR·차세대 전력인프라 등 주요국 협력사업 무역금융 지원
  - \* 대형건설사, 중소·중견 부품사 등 필요자금 지원 및 이행성 보증 제공
-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원전 中企 무역금융 우대 지속 공급
  - \* 2백만원 이하 한도책정절차 생략, 원전수출 첫걸음기업 1.5배 한도 우대, 보험료 20% 할인 등
  - \*\* 원전中企 지원실적 : ('24) 284억원, 3개사 → ('25) 405억원, 5개사 → ('26 목표) 500억원

□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공급

- GPU 등 핵심기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보험 제도 개선<sup>('26.2Q) 신규</sup>
  - \* 품목개선·업종확대 : (현행)주요 자원(광물 등)으로 품목 제한 / 수출·제조기업(사치재 外 전품목) → (개선)AI 핵심품목 및 첨단산업 주요 기자재 확대 / 내수·비제조기업 한시적 허용
- AI 관련 기자재 수출 中企 대상으로 무역금융 우대<sup>('26.2Q) 신규</sup>
  - \* 신용보증 한도 1.5배 우대, 보험료 최대 20% 할인, 부보율 100% 적용 등
- 수출기업 중 스타트업 등 R&D 혁신기업 대상 무역금융 우대<sup>('26.3Q) 신규</sup>
  - \* R&D 전담은행 출연금을 활용, R&D 혁신기업 보증비율 상향(100%) 등 우대

□ 에너지산업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국내 기반 강화 지원

-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내은행 참여가 확대되도록 무역금융 지원
  - \*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사업 → 글로벌 성장 산업군으로 수출기반보험 확대 적용

◇ 국내 신재생에너지(해상 풍력발전) 프로젝트 사례

- 글로벌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조달 중이나 추가 자금 조달 필요
- 국내은행은 원화자금 조달에 강점이 있으나,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참여 경험 부족으로 소극적, 수출신용기관(ECA) 보증을 통한 리스크 분산시 참여 검토 可

□ 자원안보·공급망을 강화하는 무역금융

- 현지법인 대상으로 광물·에너지 구매 자금 조달 등 무역금융 지원<sup>('26.3Q) 신규</sup>
  - \* (기존)국내 본사 대상 수입보험 제공 → (확대)해외 현지법인 대상 글로벌 매입보험 신설

### ①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별 무역금융 공급

#### □ 新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

##### 【 수출 단계별 지원체계 】

수출 계약 前	수출 계약 後	수출대금 결제 前	사고발생
수입자 신용조사	신용보증 우대 (제작자금 등 지원)	수출채권 유동화 (수출팩토링 등)	단기수출보험 보상 채권 회수 대행 등

○ 국외기업 신용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 완화<sup>(’26.3Q) 신규</sup>

\* 무역보험공사 신용조회업 예비허가 既취득(’25.7월), 본허가 취득 예정(’26.3Q)

○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채권 유동화\* 확대 공급 및 수출채권 직접 매입\*\* 추진 검토 : 3조원<sup>~’30년 (’26.3Q) 신규</sup>

\* 단기수출채권 유동화 목표 : (’25) 0.3억불 → (’26) 3억불 → (’30) 5억불

\*\* (1단계) 국내은행 협업 온렌딩(On-lending) → (2단계) 직접매입(수출팩토링)

○ 우리 기업의 안심수출을 위해 단계별 해외 미수채권 관리체계 강화

\* (1단계)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확대 → (2단계) 해외채권 종합관리센터 운영

#### □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중장기 금융지원 강화

○ 항공·바이오·철강 등 주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중장기 금융 적시 지원

##### 【 ’26년 무역금융 지원 예정 사업 】

구 분	주요 검토 지원 사업
항공	▪ D社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 체결(사업비 U\$362억)
바이오	▪ C社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증설(사업비 1.4조원)
철강	▪ H社 자동차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건설(사업비 U\$60억)

○ 대·중소 해외 동반 진출 중소·중견 협력사 대상 중장기 금융 우대<sup>(’26.1Q) 신규</sup>

\*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현행 80% → 개선 최대 90%까지 확대

## □ 주요국 조선 협력 및 국내 공급망 강화 금융 지원

- 기존 선박금융 중심 → **항만·해양 물류 인프라 등 패키지 금융 제공**<sup>(’26.2Q) 신규</sup>
  - \* 해외 조선소 현대화, 항만시설 확장, 한국 조선소·기자재 업체의 해외 생산거점 구축 등
- 해외 조선소 건조 선박사업에 대한 선주금융 지원 확대
  - \* 기존국내 조선소 건조 선박 한정 → 개선우리기업의 해외 조선소 선박 건조도 지원
- 국내 조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급망 단위 쏠주기 지원 확대
  - 기자재 → 조선소·항만 설비 → 물류 인프라까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
  - \* 조선 수출공급망 계기, 대형조선사 핵심 협력사 대상 유동성 및 이행성 보증 지원
  - 중소형 조선사 RG 특별계정 신설 및 RG 공급 확대<sup>(’26.3Q) 신규</sup>
  - \* 중소형 RG 지원실적(억원) : (’23) 717 → (’24) 3,264 → (’25) 1,421 → (’26 목표) 7,400

## ② 국내·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

### □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장 개척

- 다자개발은행 및 주요국 수출신용기관(ECA)와 협업 강화
  - \* ADB CGIF(ADB 산하 채권보증기구)와 S사의 싱가포르 회사채 발행 공동보증 예정(’26.上)
  - \*\* 호주(EFA), 캐나다(EDC) 등 주요국 ECA와 현지 핵심광물 개발 공동지원 협의 중
- 저개발국 국책은행 대상 우리기업 참여사업에 대한 **온렌딩 금융 제공**
  - \*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의 글로벌 상업은행 대출(€2억)에 대해 우리기업 참여조건부로 보증 (’26.6월)

### □ K-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

- 중소형 해외 프로젝트의 국내은행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<sup>(’26.2Q) 신규</sup>
  - \* 주요 권역별 표준금융 약관 마련, 재무약정 완화, 사업성평가 약식 실시 등
- 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외화자금 조달 지원 확대로 해외사업 기반 강화
  - \* (기존)기업 현지법인 중심으로 운영 → (확대)금융기관 현지법인까지 적용

### ①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 개정

#### □ 무역금융 종합 플랫폼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제고를 위한 법 정비

- 무역금융 혁신을 위해 보험·보증연계 투자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

##### 【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(안) 】

- ▶ (유동성 공급) 보험·보증 연계 투자 및 수출채권 직접 매입 (수출팩토링)
- ▶ (지역기업 지원) 지방정부·공기업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(시행령 개정)
- ▶ (고위험군 지원) 고위험 산업(중소형 조선사 RG) 등에 대한 특별계정

-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업무 범위 내 정부 위탁업무 수행 근거 마련

\* 무역보험 외 우리기업 대외거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수행 추가

### ② AI 기반의 對기업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

#### □ AI 기반 신용조회 플랫폼 구축 및 수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<sup>(’26.2Q) 신규</sup>

- 빅데이터 및 AI 분석을 활용 우수 바이어 추천 및 리스크 관리 강화

\* 480만개 해외기업 신용정보 및 7만개 불량기업 신용정보 DB 既 구축

##### 【 AI 기반 수요 맞춤형 서비스(안) 】

- ▶ (기업) 유사기업 AI분석 기반 우량 수입자 제안, 국제거래 제재대상자 확인·공유 등
- ▶ (산업) 빅데이터 분석 기반 ‘산업별 위험 분석지도 서비스’ 구축·제공 등
- ▶ (제도) 맞춤형 검색 기반 무역보험 제도 정보 통합 조회·제공 등

#### □ AI·데이터 기반 다이렉트 무역보험 공급으로 영세·중소기업 수출 지원

- AI·데이터 분석 기반 보험한도 증액, 서류 간소화 등 접근성 제고

\* 다이렉트 보험·보증 실적 및 목표(조원) : (’23) 1.1 → (’24) 1.7 → (’25) 2.3 → (’26) 2.7

## V. 향후 계획

정책 과제	추진 시기
<b>1. 중소기업과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</b>	
•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확산	'26(연중)
• 수출패키지 관련 수출금융 포괄 업무협약 체결	'26.2Q
• 수출 초보기업 단체보험 확대	'26(연중)
• K-수출스타 참여기업 무역금융 우대	'26.1Q
• 중소·중견 대상 보험·보증연계 투자제도 신설 <small>무역보험법 개정</small>	'26.3Q
• 지방정부·공기업 무역보험기금 출연 <small>무보험 시행령 개정</small>	'26.3Q
•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군 대상 무역금융 우대 신설	'26.3Q
<b>2.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무역금융</b>	
• 유통플랫폼기업(M社) 수출공급망 업무협약 체결	'26.1Q
• K-콘텐츠 단체보험 신설	'26.2Q
• 루마니아 우리기업 수주조건부 先금융 제공	'26.1Q
• GPU 등 AI 핵심기자재 수입보험 지원	'26.2Q
• AI 관련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우대	'26.2Q
• R&D 혁신기업 무역금융 우대	'26.3Q
•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국내은행과 공동 참여	'26.3Q
• 해외 현지법인 대상 글로벌매입보험 도입	'26.3Q
<b>3.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</b>	
• 국외기업 대상 신용정보 종합플랫폼 구축	'26.3Q
• 신흥시장 대상 수출채권 유동화 프로그램 재개	'26.1Q
• 수출채권 직접 매입(수출팩토링) <small>무역보험법 개정</small>	'26.3Q
• 추심대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력 확대	'26.1Q
• 대·중소 동반 수출시, 중소·중견 무역금융 우대	'26.1Q
• 韓조선소-美조선소 등 연계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제공	'26.2Q
• 중소형 조선사 RG 특별계정 신설 <small>무역보험법 개정</small>	'26.3Q
•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대상 온렌딩 금융 제공	'26.2Q
• 중소형 해외프로젝트 국내은행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	'26.2Q